"나는 불행한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인가?"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9
(전도서 6:1-9)

윤리학을 가르치는 어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독에 걸린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술 마실 돈이 없으면 가구를 내다 팔기도 하든지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는 난폭한 사람이다. 거기에다 아내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 부부 사이에는 4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이미 죽었고 다른 세 아이는 불치병에 걸려 신음을 앓고 있다. 그런데 다섯 째 아이가 지금 임신한 상태이다.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 학생 하나가 째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런 불우한 그리고 불행한 상황과 조건에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인 베토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병들이 있었고 심지어 청력상실까지 잃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천재적이고 깊은 음악 창조세계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불행인가? 아니면 행복인가? 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아닌 다른 무엇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전도자(코헬렛)는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해 아는 지식과 감사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받은 인생(2절),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한 천년 이상을 장수하는 인생(3, 6절)이라 할 찌라도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함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할 수 있는 인생이란, 내가 잘 사용하여서 남들에게 통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아주 인색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결국 내가 못쓰고 죽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유의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참으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정 반대의 베푸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도 봐 왔습니다. 인생은 심는대로 거두고 섬긴 만큼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또한 나비와 같아서,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쁜 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내면 행복의 나비들은 늘 찾아와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뉴장의 모든 성도들은 나의 그 어떤 상황속에서 불행이 아닌 행복한 섬김과 나눔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려운 10프로의 일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프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불행인가? 행복인가?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해석인가? 아니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안에서의 해석인가? 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이미의 90프로의 축복의조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것들을 망각하기도 하고 감사치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10프로의 문제들 때문에 이미 받는 90프로의 감사의 조건들 마져도 망각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Think는 항상 예수안에서(Under the Son) Thank로 맞추져야 행복을 재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불행이 아닌 행복이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임을 믿고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11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1월 10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39번(시편95편) '#39(Psalms 95)'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찬송 Hymn	새9장(통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기도 Prayer	방용복 장로 Elder. Yong Bok Bang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7:1-10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설교 Preaching	**"절망이 가장 소망이 되는 인생"** "A Life Where Despair Becomes The Greatest Hope"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445장(통502)"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나창현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누가복음 24:44-49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기쁜 소식"** 김성준 목사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축도	김성준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